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26 색채와 국기

英 국기 하얀색·빨간색 십자가, 수호성인 3인 문장 상징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국기는 1812년에 제정되었고, 하얀 색 가로줄 무늬 중앙에는 32줄기의 햇살을 가진 '5월의 태양'이 그려져 있으며, 이것은 1818년에 추가되었다. 민간기와 상선기에는 '5월의 태양'이 생략된 깃발을 사용한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하늘색과 하양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하양은 국기의 색이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국기는 1944년에 공화국이 되면서 채택되었고, 국기의 디자인은 스칸디나비아 십자가 새겨진 덴마크의 국기에서 유래되었다.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파랑과 하얀 십자가 그리고 빨간 십자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얀색은 아이슬란드를 뒤덮고 있는 눈과 만년설을, 하얀색과 빨간색 십자가는 스칸디나비아의 십자를 상징한다.

하얀색 하면 눈(雪)이 연상된다. 눈을 아이슬란드에서는 빙하와 설원, 이

탈리아 산마리노(San Marino)에서는 알프스의 눈, 칠레에서는 안데스(Andes)의 눈, 캄보디아와 타이에서는 성스러운 색으로 여겼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국기는 하얀색 바탕에 폭이 같은 초록색과 하얀색 그리고 주황색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로로 그려져 있다.

초록색은 가톨릭교도를, 하얀색은 신규 민족 또는 종교의 결합, 오렌지색은 프로테스탄트를 상징한다.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의 국기는 연한 청록색(또는 파랑)과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기 중앙에 초승달과 팔각별을 넣은 가로 형태의 삼색기이다.

하얀색 달과 하얀색 별은 이슬람을 상징한다.



●에콰도르
에콰도르에서 하얀색과 연한 색은 열대지방과 연안 지방에서 인기

가 있다. 순색은 농민들이 좋아한다.



●영국
영국의 현재 국기는 1800년 연합법으로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아일랜드 왕국이 연합왕국이 되면서 정해졌다.

연합왕국의 구성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깃발을 조합해서 만들었으며, 국기에 사용된 색으로는 파랑과 빨간 십자가 그리고 하얀 십자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얀색과 빨간색 십자가는 수호성인 3인의 문장을 상징한다.

현재 이들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같은 국기를 사용하지만, 월드컵 때는 별도의 국기를 사용한다. 영국 국기, 잉글랜드의 국기, 스코틀랜드의 국기, 북아일랜드의 국기.

백서(White Paper)는 1836년 영국에서 정부 보고서 표지에 하얀색 종이를 붙여 배포되면서 시작되었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시린 손 녹여줄 따스한 나눔

기고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12월은 나눔의 계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2024 적십자 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선포식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등 모금단체가 나눔 참여를 독려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나눔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참여가 쉽지 않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여전히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에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리비아 홍수, 하와이 산불 등 자연재난과 아프간 무력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해안 산불,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이태원 참사 등의 사고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 등 결코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와 각종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웠다. 연대와 협력은 바로 '나눔'이다.

철학자 김형석은 '나눔이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행복'이라고 했다. 100년을 살아 보니 행복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소유가 아닌 나눔과 베풀기 목적이 되는 삶, 돈 때문에 일하는 인생이 아닌 쓰고 베풀고 봉사하는 삶, 돈, 출세와 성공이 아닌 보람과 가치 있는 삶"에서 얻어진다고 했다. 이런 까닭으로 재난이 일상화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나눔은 자신의 행복 추구하고 더불어 공동체를 살리는 시대정신이 돼야 하지 않나 싶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4.6%에서 2021년 21%로 하향 추세다. 국민헌혈률은 6%에 불과하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세계기부지수는 세계 119개국 중 88위다. 국민헌혈률도 5%를 약간 넘는다.

최근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으로 광주지역 10대 자원봉사자 수가 급감했다고 한다. 2018년 66만8659명에서 올해 8만315명으로 5년 사이 88%로 감소한 것. 고교 헌혈 또한 2019년 5만6384명에서 2022년 2만7416명으로 51.4%가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헌혈에 참여한 고등학생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7%가 감소한 1만8586명으로 집계됐다. 추운 날씨와 방학으로 헌혈자 감소가 예상된다. 방학 중 고등학생들의 헌혈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가족과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성

공해서 나누겠다'고 하면서도 이후에는 '나중에'라는 말을 반복하며 나눔 실천을 미루거린다. 아래 사례를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두 달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 헬멧을 쓴 채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동전 등을 건네며 하는 말이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 주세요."

이 돈은 의수인 손으로 고물과 폐지를 주워 팔아서만 만든 것이다. 고마움에 "차 한잔하시죠" 하면 "괜찮습니다"라며 오히려 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 주면서 미소 짓는다. 기부 처리를 위해 이름이라도 물으면 정색한다. 그는 이렇게 7년동안 120만원을 이름없이 기부했다. 최근 80대 할머니도 반평생 공장노동자, 지하철 청소, 노점상으로 모은 전 재산 5억원을 사후에 기부하고 장기기증까지 약속해 감동을 주고 있다.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은 연탄의 고마움을 "내 자신을 전부 태워 시린 손 녹여 줄 따스한 사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님의 추운 겨울을 지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눈보다 더 하얀 사랑이 되고 싶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눈 내리는 길목에서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리는 연말은 나눔의 시간이다. "예쁜 모습은 눈에 남고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베풀은 가슴에 남는다"는 글귀처럼 올겨울 시린 손을 녹여줄 가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보자.

전일광장 | 이기언 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교육학박사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공존하는 '빅블러' 시대

2023년 대한민국 트렌드 중 하나는 '선제적 기술 대응'이다. 소비자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해결방안을 제공해 불편을 해소하는 기술인데, 여기에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교육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에듀테크도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삶에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밀착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이다.

최근 개최된 '2023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특별 대담을 맡은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아가르와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는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Big Blur(빅블러) 시대에 맞추어 양자택일이 아닌 서로 다른 생각을 엮어내는 'and thinking(앤드 싱킹)'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and thinking(앤드 싱킹)은 동시에 생각하는 역량으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고 통합해내는 능력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사이의 벽, 학교와 직장의 벽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직장 내에서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개인이 가진 기술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스킬(Upskill)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리스킬(Reskill) 등 학습이 일상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리노이대학교 박운수 교수는 학습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툴 등 다양한 기기가 추가되면 학생의 사고력은 일정 수준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변화의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교사의 피드백 등 상호작용이라는 결과이다. 학습활동에서 학생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에듀테크의 본질적 목적이다. 이에 교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수집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본 역량으로 갖추어야 한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자료 해독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기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재구성뿐만 아니라 맞춤형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중등 정보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에듀테크로 대표되는 교육과 접한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은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전국 사·도 교육청에서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보급에 1조 6000억원을 투입하였고, 앞으로도 수년간 조 단위 금액이 투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 여건인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디지털 기기 보급 예산의 10%정도만이 교실 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되었고, 이는 교실 무선 네트워크 속도가 1Gbps 이상인 곳의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급된 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부족하다. 아직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에 답을 콘텐츠 역시 기기의 보급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이 마련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교육에서 미래에 살아갈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인간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이테크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기술적인 변화를 체득하기 위해 계속 진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온 긴 시대를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가치는 인간의 인성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대로 가까이 갈수록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볼 때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